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0월 8일(금)
(윤력 9월 3일)
Пятница
8 октября 2021г.
№ 39 (1195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2 김나지아. 류드밀라 셸로하예바 한국어교사 학생들과 함께. (관련 기사 2면)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교사의 날 기념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교직과 교직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의 주간 행사가 진행된다. 사할린주도 이 주간에 참가하기로 했다. 특히 10월 5일, 교사의 날에는 수많은 대규모 행사들이 펼쳐졌다. 이날 교사들을 축하하고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포상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이날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 공원에서 교사의 날 기념 <역사에서 교사의 역할> 디지털 전시가 열렸다. 사할린은 러시아의 13지역에서 개최된 이 전시의 첫 번째 지역이었다. 전시를 개최한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테와 장관은 교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교사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도 사할린 지역 교사들에게 따뜻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재건에 연방에서 추가 지원 지출

러시아 정부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재건에 추가 예산으로 25억 루블리를 지불하기로 했다. 러시아 연방 부총리 마라트 후스눌린은 주재한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것이 결정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의 재건을 위해 25억 루블리 이상의 예산을 배정 받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 투자와 지역 자금을 유지할 것입니다. 공항은 사할린에 도착하면 주민들과 손님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지역의 관문입니다. 지금 공항은 현대적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을 위한 현대적이고 편안한 공항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의 시행은 공항 단지의 수용능력을 연간 최대 5백만명으로 5배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공항에 내진 요건에 맞는 새 활주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새로운 공항터미널은 2022년 말까지, 그리고 2025년에는 활주로를 준공할 계획이다.

사할린 코로나 환자를 위해 1,758만 루블리 상당의 무료 의약품 제공

러시아 여러 지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 무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51억 루블리 이상 할당된다. 이에 대한 법령에 러시아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이 서명했다.

해당 금액은 러시아 정부 예비 기금에서 책정된다. 이 돈으로 150만 여명이 약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해당 조치는 외래 환자, 즉 의사의 감독 하에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모든 약품은 주치의의 처방전에 따라 무료로 제공된다.

이 결정은 9월 30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미하일 미슈스틴은 국가의 역학 상황이 여전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매일 2만 건 이상의 새로운 사례가 보고되고 입원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의 감독 하에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할린주에 배정되는 금액은 1,758만500루블리다.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23회 수산업 전시회 열려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티몰, 3층)에서 사업가와 전문가, 개인을 위한 다양한 동반 이벤트 프로그램과 함께 제23회 "수산업" 특별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올해 사할린과 쿠릴 수산업 전시회에서는 어류 가공, 포장 및 용기, 작업복, 식품위생 등을 위한 새로운 장비들이 소개되었다.

지난 7일(목) 2021년 우수 사할린 수산물과 해산물을 결정하는 <시민 인정> 품질 경연대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사할린업체들이 새롭게 출시하는 수산물 및 해산물 제품도 소개되고 흥미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전시회의 손님들을 맞이했다.

쿠나쉬르 섬, 어분과 어유를 생산하는 시설 완공

쿠나쉬르 섬에 <유즈노쿠릴스크 수산공장> 콤파니가 어분과 어유를 새로 생산하는 작업장을 준공했다. 기술장비의 실험작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제품의 공식적인 출시는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 유즈노쿠릴스크 구역에 1만2천여명이 거주하는 가운데 46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이 지역 경제에 중요하다. 제품 출시에는 태국제 장비를 사용할 것이다.

작업장의 추정 연간 제품 생산량은 8000톤인데 그 중 5000톤은 어분, 나머지는 어유다. 이 생산품은 국내 및 국외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새 과수원 생겨

지난 6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사할린주 설립 75주년 맞아 과일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다. 사할린주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 명에 시민들이 이 행사에 참가했으며, 배, 사과, 자두 나무 묘목을 비롯한 과수 100그루를 심었다. 새로 생긴 과수원은 도시의 동남쪽에 있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 지부의 해양연구자동화수단특별설계국 건물 근처에 위치한다.

모든 나무는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감독하에 심어졌으며 모든 묘목은 현지 기후에 적응되었다 한다.

사할린, 재즈 축제 개최

지난 6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재즈 축제가 열렸다. 3일간 축제에는 러시아 인민 배우 이고리 부트만 세계적인 음악가를 비롯 모스크바 재즈 오케스트라 판티네 재즈 가수 등 러시아 재즈 음악가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옥차브리> 영화공연관에서 훌륭한 무대를 선보였다. 축제 일환으로 이고리 부트만과 만남과 크리스티나 코발료바의 마스터클래스도 진행되었다.

새고려신문

2022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7루블리 0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10월 5일은 국제 교사의 날, 10월 9일은 한글날

한국어 가르침에 열정을 가진 젊은 교사 류드밀라 셸로하예바

류드밀라 블라디미로브나 셸로하예바(Шелохаева Людмила Владимировна) 씨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 김나지아에서 3년째 한국어 교사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어린시절 한국어 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막연히 교직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부모와 조부모가 교직에 종사하고 있어 교사에 대한 선망과 가능성은 있었던 것이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면서, 한국어 교사 전공이 유독 눈에 띄었다.

"우리는 한 섬에 살고 있습니다. 사할린에는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고 그런 이웃들을 더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문화, 역사, 풍습, 전통 등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류드밀라는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에 입학, 한국어 교사 전공을 선택한 결심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 선택에만 한번도 후회는 없었다.

"좀 어렵긴 했지만 공부하기가 재미있었어요. 무엇보다 하고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한 발자국을 더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잘 해요."

류드밀라에게 '한국어 배우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학생들을 더 독려하고 이끌어 줄 수 있었다. 평소애 그가 좋아하는 표현은 "자신을 믿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고 한다. 이 말은 그가 교사의 삶을 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그는 모든 기회를 동원해 참여하고 있다. 제주 국제 청년포럼에 참가하기도 하고 여름방학 때는 한국어과 교수들, 학생들과 함께 한국에 연수를 갔었다. 한국에 갔을 때는 자비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온 적도 있다.

그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던 시절을 가장 한국어 실력이 성장했던 때라고 회상한다.

대학 3학년때, 4개월간 경주 동국대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 곳에서 학업을 연장하고 싶어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교수진을 설득해 교환프로그램을 한 학기 더 연장할 수 있었다. 교수들에게 성실한 학생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주는 역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불국사, 석굴암...꼭 한번 가봐야 합니다.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학 시절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이 있었지만



교환학생으로 가니 좀 달랐어요. 예전에 방문했을 때는 단체로 움직이고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죠. 교환학생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하는 게 많고 일정과 학업에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동창과 같이 유학을 갔는데 같은 기숙사에 있었지만 학반이 다르고 활동도 달라서 저녁에만 만났어요. 한국친구들도 사귀고 전 세계에서 온 교환학생들과도 많이 친해졌어요. 우리(서양 사람)를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었죠. 한국에 대한 따뜻한 추억이 많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류드밀라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 시절을 회상했다.

류드밀라가 남다른 멘탈, 이질적인 문화를 받아드릴 준

비가 잘 돼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 드라마, K-팝도 한국어 익히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예전에는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학생들을 위한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한국어과를 졸업한 후 그는 사할린국립대 교육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졸업하는 무렵에 사할린국립대 역사·어문·동양학 대학 학장 임 엘비라 한국어 교수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 김나지아에 한국어 교사가 필요하다고 류드밀라를 적극 추천했다. 이 김나지아에서는 이미 한국어 교사 한 분이 있었지만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어 교사가 더 필요했다. 그는 현재 5, 6, 7학년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1학년생들에게는 한민족문화를 알려주고 있다.

"가르치는 일이 재미있고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인터랙티브 등 여러 교수법을 이용해 학생들의 관심이 식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죠. 저는 민족문화와 관련 수업을 좋아해서, 한국에서 체험한 것을 들려주곤 해요.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해 호기심을 심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애정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교직은 적성에 잘 맞았다. 이런 열정과 실력이 인정받아 학교에서는 사할린주 <사범(교사) 데뷔>경연대회 참가자로 그를 추천했다. 이 경연에는 1년에서 5년까지의 경력이 있는 30세 이하의 젊은 교사들이 참가할 수 있다. 류드밀라는 첫 단계(서류 및 에세이)를 잘 통과하고 지난 9월에 최종 경연에 나설 수 있었다.

"김나지아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좋고 지도부에서도 잘 해주고 멘토링이 잘 돼 있습니다. 저도 따로 멘토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연준비에도 도움을 주셨고요. 최종단계에는 12명이 참가했는데 경연 동안 많이 친해졌어요. 경험도 공유하고 젊은 교사로서 같은 문제를 겪다 보니 통하는게 많더라구요. 경연이 끝났지만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냈

니다. 저에겐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어요"라고 류드밀라가 말했다.

일상에서 야외를 즐기는 것 좋아하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겨울에는 산스키타는 것을 좋아하는 류드밀라는 '코비드 팬데믹 시기가 빨리 끝나고 한국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한다. 누구보다 한국 문화를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은 바로 우리 한국어 교수들입니다. 임 엘비라 선생님, 코르네예와 인나 선생님 등이 항상 적극적이시고 한민족 문화와 한국어 보급에 시간과 힘을 아끼지 않은 분들입니다. 한국어 교사들, 특히 젊은 교사들을 항상 챙겨주고 도와줍니다. 이들이 항상 창의적 분위기와 환경을 잘 만들어줍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하거든요. 김나지아에서 한민족 축제를 하는 데에도 도움 많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교수님들을 많이 존경합니다." 류드밀라의 진심이 담긴 말에 필자도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교사의 날과 한글날을 맞아 한민족문화와 한국어 보급에 나선 모든 한국어 교사와 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모저모

사할린 주민, 동물원에 1톤 이상 채소와 과일을 기부

사할린 동물원 직원들은 9월 "풍년, 동물원에 수확물을 가져오자" 행사의 일환으로 1톤이 넘는 채소와 과일을 기부 받았다.

사할린 주민들은 애호박, 호박, 파티송 호박, 사과, 배를 아낌없이 기부했다. 가장 많이 기부된 작물로는 배 544 kg, 애호박 336 kg, 사과 177 kg, 호박 105 kg 및 파티송 호박 14 kg 등이 있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기부 목록 외에도, 동물들에게 수식 킬로그램의 당근, 비트, 오이, 순무 등을 가져왔다.

이 행사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배를 가장 많이 기부하여 승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는 나탈리아 보고슬로베츠와 블라디미르 아프리첸코로 각각 105kg과 100kg을 기부했다.

시상식은 동물 보호의 날 전날인 10월 3일 16시에 동물원 중앙 무대에서 열렸다. 후원자들은 동물원 무료 입장권, 여행권 및 기타 경품들을 받았다.

Сахалинцы передали в дар зоопарку более тонны овощей и фруктов

Свыше тонны овощей и фруктов приняли сотрудники островного зоопарка в рамках сентябрьской акции "Добрый урожай — в зоопарке выгружай".

Сахалинцы щедро делились излишками урожая кабачков, тыквы, патиссонов, яблок и груш. Из них больше всего привезли садовых груш — 544 кг, кабачков — 336 кг, яблок — 177 кг, тыквы — 105 кг и 14 кг патиссонов. Кроме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ленных даров, животным также приносили десятки килограммов моркови, свёклы, огурцов и репы.

Всего в ак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60 человек. Среди фруктовых победителей по грушам пальму первенства разделили Наталья Богословец и Владимир Априщенко — 105 и 100 кг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состоялось накануне Дня защиты животных, 3 октября, в 16:00 у главной сцены зоопарка. Благотворители получили пригласительные билеты на бесплатное посещение зоопарка, экскурсии и другие приятные призы.

Александр Невский 컨퍼런스에 학생들 참여 초대

2021년은 루시의 역사적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친, 성스러운 왕자이자 군사 지도자이며 외교관인 알렉산드르 넵스키 탄생 800주년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는 축복받은 왕자를 기리기 위해 "조국 알렉산드르 넵스키, 영원한 영웅"이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승리" 박물관은 이 컨퍼런스에 5-11학년의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들을 초대한다.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유산인 알렉산드르 넵스키의 삶과 활동에 대한 교육적 연구, 사회적 기획과 창의적 작업의 결과물로 비디오를 준비해야 한다. 작업 결과물 제출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다. mmk-info@sakhalin.gov.ru

컨퍼런스는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 문학 예술 공모, "알렉산드르 넵스키, 러시아의 위대한 이름, 군의 위업 및 정신적 단결의 상징". 비디오는 알렉산드르의 삶과 공적에 대한 시와 산문 작품에서 발췌한 것으로 시의 낭송이 있어야 한다.

- 연구 공모 "알렉산드르 넵스키의 지구적 군사적 업적". 비디오에는 성인으로서 충실한 대공, 러시아 사령관, 위인으로 알렉산드르 넵스키의 성격과 공적을 연구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그의 활동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그들을 변화시켰으며, 사할린 주민들을 포함한 알렉산드르 넵스키 훈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를 통해 수세기 동안 러시아 역사를 예견할 수 있었다.

- 에세이 대회 "무한한 러시아, 추억의 장소". 비디오는 알렉산드르 넵스키 왕자에 대한 기억 보존과 관련한 장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기념비, 사원, 체류 장소 및 군사적 위업 등)

Школьников приглашают выступить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об Александре Невском

В 2021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800 лет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святого князя, военачальника и дипломата —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личность которого оказала огромное влияние на исторический выбор Руси. Благоверному князю посвящена город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Отечество Александр Невский — герой на все времена". Музей "Победа" приглаша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ферен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511 классов.

Чтобы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конференции, необходимо подготовить свои видеодоклады (видеоролики),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результатом учеб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социально-проектных и творческих работ на тему жизн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е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отображения его подвигов и образа в искусстве. E-mail для отправки работ: mmk-info@sakhalin.gov.ru.

Конференция делится на 3 секции:

- Конкурс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слова "Александр Невский — великое имя России — символ ратного подвига и духовного единства":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видеодоклады с исполнением стихов или отрывков из поэтических и проза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о жизни и подвигах Александра.

- Конкурс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работ "Земные и ратные подвиги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видеодоклады с исследованием личности и подвигов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как святого благоверного великого князя, русского полководца, великого человека, чья деятельность не просто оказала влияние на судьбы страны и народа, но во многом изменила их, предопределила ход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на многие столетия вперед, исследования о кавалерах Ордена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в том числе сахалинцев.

(8면에 계속)

뉴욕타임스 기자, 사할린한인 취재

지난 9월 27일 -10월 5일간 뉴욕타임스 모스크바 지부 안톤 트로야놉스키 기자가 사할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 변경을 주제로 한 기획기사 취재 차 <사할린의 석유가스>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또 하나의 기획으로 사할린 한인인을 취재한 것이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트로야놉스키 기자는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씨름협회 춘 알렉세이 회장, 새고려신문사 배 워도리아 사장 등을 만나 사할린 한인 현황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사할린 향토박물관 부장 진 율리아 박사에게 사할린 한인사를 듣고, 주미술박물관의 <새들이 하늘 위로 날아간다> 한 반도 현대 공예·미술 전시회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하이 올라 학예연구사의 한민족 예술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뉴욕타임스 지 기자의 인상적 방문 중 하나는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에서 만남이다. 그는 신 율리아 한민족예술과 과장과 김 엽게니아 안무강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

의 수업도 참관했다. 또한 사할린 기독교 장로교회(푸르카예브 거리) 예배도 찾은 등 많은 한인들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취재했다.

특히 올해 영주귀국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2021년 영주귀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세와 그의 딸을 만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고통련 원동위원회 이규율 위원장과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할린, 사할린한인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해졌다. 이번 취재에는 뉴욕타임스의 세르게이 포노마료브 사진기자가 동행했는데 세르게이는 폴리처상 수상 경력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러시아 출생인 안톤 트로야놉스키 기자는 4살 때 가족과 함께 독일로 이민 가 4년을 살다가 미국으로 떠났다. 언론에 관심이 많아 대학시절, 대학신문에 많은 기사를 투고했고 2008년에 하버드대학교를 졸업 후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에 취직하여 5년간 비즈니스와 부동산에 대해 글을 썼다. 이후 5년은 월드 스트리트 저널의 베를린 특파원으로 활약



했다. 모스크바에서 일하고 싶던 차에 2018년, 워싱턴 포스트 모스크바 지부장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고 2년 전 뉴욕타임스 모스크바 지부장으로 스카우트 되었다. 유년시절 러시아를 떠났지만 안톤은 러시아어에 능통하다. 집에서 부모, 조부모가 러시아어로 대화하기 때문이다. 그는 기자로서 사람의 삶을 다룬 기사, 사람냄새 나는 기사를 쓰는 것이 좋으며 자긍심을 밝혔다.

(본사기자)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 10월 4~9일 온라인 개최

전 세계 한국어 학자, 교육자, 통·번역 전문가, 언어 산업 관계자 한자리에 국제학술대회, 언어 산업 전시회 등 진행 공식 누리집(www.wockl.org) 통해 중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국립국어원(원장 직무대리 신은향)과 함께 10월 4~9일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공식 누리집(www.wockl.org)을 통해 중계한다고 9월 29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 학술대회, 언어 산업 전시회, 한국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등이 진행된다.

지속 발전 가능한 한국어의 미래를 찾아가는 국제 학술대회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학자, 교육자, 통·번역 전문가, 언어 산업 관계자 등 130여명이 함께하는 온라인 국제 학술대회가 10월 8일과 9일에 열린다. 참가자들은 '한국어·한글 미래를 말하다'란 주제로 코로나 19 사태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언어 산업 환경 속에서 한국어와 한글의 변화에 주목하고 한국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한다.

한강, 신경숙 작가의 작품 등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린 문학 소개 전문가 바버라 지트위 씨가 외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어, 한국 문학, 한국 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국내 대표 언어 인공지능 기업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가 '세종의 꿈, 인공지능이 꽃피운다'를 주제로 날로 발전하는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변화를 발표한다. 이어 모든 참가자가 그동안 각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나누고 미래 시대 한국어 발전을 위한 계획을 공유한다.

한국어 인공지능 처리 기술의 현재와 미래, '언어 산업 전시회'

'언어 산업 전시회'가 올해 처음으로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으



로 열린다. '인공지능과 언어 산업(한국어, 인공지능을 만나다)'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언어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업들의 다양한 한국어 처리 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는 주제관, 전시관, 특별관으로 구성된다. 주제관에서는 인공지능 언어 처리 기술을 소개한다. 전시관에서는 ▲회의 내용을 녹음하면 발언자를 구분해 회의록을 작성해 주는 '네이버의 클로바노트' ▲전화중심의 모바일 환경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T-전화 누구 ▲각기 다른 성격의 언어 데이터로 훈련된 가상 인간 2명과 대화할 수 있는 '솔트룩스'의 지능형 인공지능 플랫폼 '스위트' 등 우리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총 12개의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관람

하고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채용에 관련된 상담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구직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특별관에서는 10월 7일 '우리말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언어 산업 관계자들의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해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언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한국어 공모전 19개 수상작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온라인으로

아울러 '함께 누리는 한국어 공모전'의 수상작 전시회도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국어 창작 노래(랩)와 아름다운 한글 캘리그라피 부문으로 나눠 열린 공모전에는 330여명이 참여했다. 심사를 통해 최종 19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됐고, 대상인 문체부 장관상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마음을 표현한 한국어 창작 노래(랩) '애민'이 받았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 공식 누리집(www.wockl.org)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10월 9일 열리는 폐회식에서 수상자들의 작품 소개와 수상 소감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도 '2021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 능력 평가, 세종학당재단의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관한 '한글 창 산업·아이디어 공모전' 등이 연계 행사로 열린다.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의 모든 행사는 행사 기간 이후에도 공식 누리집(www.wockl.org)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고려인동포 원로언론인 블라디미르 리 자전적 저서 출간



지난 9월30일 모스크바시립 민족회관 중앙홀에서 '온갖 잡동사니'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이 이 책의 저자인 블라디미르 리 선생. [사진제공=모스크바 프레스]

고려인 원로언론인 블라디미르 리 선생의 자전적 저서가 최근 출간됐다.

모스크바 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모스크바시립 민족회관 중앙홀에서 <온갖 잡동사니>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러시아 법무부 고위공무원으로 일한 블라디미르 리 선생은 고려인동포 권익보호와 한러 교류협력을 위해 일해온 언론, 사회활동가다.

총 500쪽에 달하는 이 책에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에서 존경받는 여러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칼리닌그라드 지역 고려인 지도자 스타니슬라브 임, 노동 영웅으로 추앙받는 블라디미르 박, 알라이의 저명한 시인 알렉산드르 박, 세계역도 챔피언 블라디미르 한, 세계적 리듬체조선수 밀레나 안, 세계댄스 챔피언 아나스타샤 김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일반 고려인동포들의 삶과 운명, 전통, 관습, 생활방식을 고찰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회 주최하고 모스크바시 민족정책부, 고려인신문, 모스크바프레스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고려인동포 지도자들과 러시아정부 민족부서의 여러 책임자, 그리고 러시아와 고려인사회의 학계와 언론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러시아와 CIS 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

(서울=월드코리아신문)

전 세계 67개국 310명 한인회장 참여하는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전 세계 67개국 310명의 한인회장들이 모여 재외동포사회의 미래 발전을 논의하는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식이 5일 서울 그랜드 워커히 및 대회 홈페이지(hanin2021.co.kr)를 통해 개최됐다.

개회식은 대회 공동의장인 주점식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의 축사와 김성곤 이사장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만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대회는 '하나된 동포, 더 강해진 대한민국' 주제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7일까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0개 지역별 현안 토론 및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정부와의 대화 등이 열린다. 올해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103명의 오프라인 참가자가 참석했다.(온라인 207명)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을 기념하는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도 5일 오전에 함께 진행돼 재외동포 유공자에 대한 정부 훈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김성곤 이사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에 뻗어 있는 750만 재외동포가 글로벌 코리아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과 시민 의식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인회장들이 재외동포의 대표로서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과 인류 평화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의 주최, 외교부 후원으로 진행된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Юрий Башмет открыл «Русские сезоны» на сцене Сеула

Сеул, 5 ок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По случаю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серия спектаклей и выставок принесет в страну красоту и богатство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Русские сезоны 2021 года в Южной Корее стартовали 2 октября концертом камерного ансамбля солистов Москвы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льтиста и дирижера Юрия Башмета в Сеульском Центре искусств.

«Русские сезоны» — это культурный фестиваль, объединяющий Россию и отдельные страны,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Ранее они предлагались в Японии, Италии, Германии, Франции, Бельгии и Люксембурге.

Алексей Лебедев, директор «Русских сезонов», сообщил, что они готовились к программе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с 2019 года.

«Мы хотим представить многообразие вели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России, включая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классический и современный балет. Из-за пандемии мы, возможно, не проведем все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о мы с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да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б основных моментах российской культуры», — сказал Лебедев.

Посол Росс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Андрей Кулик приветствовал проведение «Русских сезонов» в рамках продолжающихся усилий двух стран в гуманитарной области, включая культуру, назвав камерный ансамбль «Солисты Москвы» «бриллиа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музыки.

Еще одним событием «Русских сезон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станет открытие бюста знаменитого русского писателя Льва Толстого в Доме литературы Сеула в ноябре. Скульптура, выполненная Екатериной Пильниковой, выпускницей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академии художеств имени Ильи Репина, будет изображать контуры лица великого русского писателя, автора «Войны и мира» и «Анны Карениной».

Поскольку пандемия COVID-19 помешала полномасштабным выступлениям на сцен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ультурный проект запустил две онлайн программы, обе из которых доступны в Южной Корее.

«Оставайся дома с русскими сезонам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библиотеку культурных медиа, предлагающую более 150 трансляций российских спектаклей и концертов, которые уже собрали более 45 миллионов просмотров с момента ее запуска в 2020 году.

«Открытие России с русскими сезонами» — еще один онлайн-видеопроект,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команда «Русских сезонов» проводит экскурсии по культур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России, включая театры, музеи и дворцы. «Хотя онлайн-выступления нельзя сравнить с живыми, такие проекты помогли нам привлечь больше людей к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 сказал Лебедев.

История о том, как лингвисты из Москвы приехали на Сахалин, а словно очутились в Корее

На остров мы, 8 студентов и 2 профессора из Москвы, приехали на 9 дней для участия 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ас учатся в магистратуре по программе «Языковая политика в условиях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в НИУ ВШЭ, и эта поездка была для нас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практикой в рамках нашей учебной программы.

Нашей главной целью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о изучить семейную и языковую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осмотреть, на каких языках говорят они и говорили их предки, переехавшие на Сахалин и родившиеся здесь. Истории предков местных корейцев очень увлекательны, но вместе с тем трагичны: как известно, многие были насильно завезены на остров японцами во времена аннексии Кореи Японией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X века.

За время поездки мы посетили Сахалин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ыставку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масте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орейскую церковь, рынок, корейские магазины и не один корейский ресторан. Во время визитов мы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интереснейшими людьми с непростой и необычной судьбой и провели около 50 интервью, где расспросили наших респондентов об их семьях и языках, на которых говорили в их семье. Среди наших информантов и юные студенты СахГУ, решившие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и корейцы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ые свободно говорят на корейском,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выросшие в многоязычных семьях.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в Москву нам предстоит обработать эти данные, а в качестве результата наш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мы планируем создать медиапроект и написать научную статью, посвященную языковому сдвигу в семья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м было невероятно интересно узнавать о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в России от сам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этой культуры, а также слушать истории семей, потому что каждая уникальна, ведь за каждым человеком стоят его предки, которые прожили удивительные, сложные жизни (покинули родину и семью, говорили на нескольких языках, испытывали давление и дискриминацию, интегрировались в другое сообщество). Я очень вдохновилась тем, насколько хорошо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молодежь, знают историю своей семьи. В начальной школе я делала генеалогическое древо своей семьи, но глубоко в истории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е погружалась. А теперь хочется заполнить



этот пробел и задокументировать эти важные и неповторим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Помимо работы, наша команда, конечно, успела погулять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попробовать местную кухню и посетить знамениты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мы пешком забрались на гору Большевик!). Город на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после Москвы здесь особенно сильно ощущается размеренный, спокойный темп жизни, чистый воздух и природа вокруг, уют и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ь жителей.

А завершили мы нашу экспедицию поездкой на маяк Анива, потому что от многих наших респондентов слышали, что нельзя не посетить это легендарное место. Добраться до маяка можно только по воде, и этот факт сделал путешествие еще более незабываемым: мы неслись со скоростью 55 км/ч на моторной лодке, подсаживая на волнах и наслаждаясь видами и морским воздухом. Видели нерп, греющихся на солнце, и огромных медуз. А еще понимали, что будем очень скучать по Сахалину и обязательно вернемся сюда снова.

Текст: Айгуль Юсупова

Иллюстрация: Ната Скореходова

Сеульская неделя моды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всему миру

Сеул, 3 ок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Весенне-летняя Сеульская неделя моды 2022 года пройдет онлайн с 7 по 15 октября, при этом ведущие и начинающие дизайнеры Южной Кореи представят свои коллекции в видеороликах, снятых в исторических местах Сеула. В течение семиднев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будет показано до 37 модных фильмов, снятых 26 известными и 11 начинающими дизайнерами. В «Сеульской коллекции» ведущие дизайнеры представят свои новые творения, в то время как до 11 начинающих дизайнеров покажут свои работы на отдель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од названием «Поколение Next». Видеозаписи были сде-

ланы в различ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местах, таких как королевские дворцы в Сеуле. Видеоролики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Сеульской недели моды, а также на различных онлайн-каналах, таких как YouTube и Naver TV, с 7 октября.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девять брендов сосредоточились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материалов или стремились избега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материалов на основе животных в своих работах. Участник K-pop группы EXO Кай был назван глобальным послом нынешней недели моды в Сеуле вслед за актером Бэ Ду На, который был послом на осенне-зимней неделе моды в Сеуле в 2021 году.

Трое в списке самых влиятельных людей в мире

Нью-Йорк, 2 ок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Американская поэтесса и публицист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Кэти Пак Хон появилась на обложке журнала TIME.

Фото Хон опубликовано на одной из семи обложек, посвященных «100 самым влиятельным людям в мире».

В число других вошли британский принц Гарри и его жена Меган, певцы Билли Эйлиш и Бритни Спирс, актриса Кейт Уинслет, гимнаст Саймон Байлс и нигерийский экономист Нгози Оконйо-Ивеала.

Хон родилась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и училась в Оберл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в штате Огайо. Ее известные работы включают поэтические сборники «Перевод Моума» (2002) и «Танцевальная революция

танца» (2007). Сейчас она преподает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Ратгерса в штате Нью-Джерси.

Ее первая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ая книга «Незначительные чувства: расплата в Азиа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м регионе», изданна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священа проблемам расов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Она получила прем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ассоциации книжных критиков США и попала в финал Пулитцеровской премии этого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в список «100 самых влиятельных людей в мире» также вошли два представителя Южной Кореи — актриса Юн Ю Чжун и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актер Стивен Юн, оба за роли в фильме Ли Айзека Чанга «Минар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чти 50 курильчан трудоустраивают на нов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На Кунашире заверши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цех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выпускать рыбную муку и рыбий жир. Наладчики провели успешный пробный запуск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сюда придет комиссия для приемки объект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Официальный запуск цеха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рыбокомбината» намечен на начало ноября.

Экономика отдаленных российских островов построена на добыче и переработке водных биоресурсов. Российские рыбаки наладили масштабный промысел горбуши, кеты, минтая, трески, сельди-иваси, сайры, камбалы.

—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природу, надо рациональ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ее ресурсами. Но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созданное на Курилах, — пример такого подхода. С запуском цеха пойдут в дело отходы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торые прежде приходилось утилизировать. Важно также, что в районе, где проживает 12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явится 46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здание цеха компании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ыбокомбинат» велось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снове н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оборудование из Таилан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гда пришло время финального монтажа и пусконаладочных работ, та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приехать на Кунашир не смогли.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границы оказались закрытыми. Чтобы не останавливать работы,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комбинат» заключил контракт с российской компанией, имеющей опыт монтажа подоб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Мы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наладили трансляцию со стройплощадки. Наши партнеры из Таиланда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следили за ходом монтажа, консультировали. В результате мы избежали остановки проекта. Пробный запуск показал, что цех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 к работе. Теперь нам предстоит ввод объект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ыбокомбинат» Константин Коробков.

Возможность транслировать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ое изображение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на одном из самых отдаленных обитаемых островов России появилась недавно. В 2019 году на Курилы проложили подводную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ую линию связи. Проект, реализованный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2016–2025 годы», обошелся в 3,3 млрд рублей.

Расчетный годовой объем продукции цеха на Кунашире, — более 8000 тонн. Из них 5000 тонн — рыбная мука. Остальное — рыбий жир. Эта продукция пользуется спросом на отечественном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 рынках. Она применяется при изготовлении кормов для рыб,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и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Запуск цеха приведет к увеличению налоговых поступлений в региональный и муниципальный бюджеты.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новостройку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11-этажный дом на 127 квартир по улице Поповича, 31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дадут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 Дом начали возводить в ма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ейчас он уже в высокой степени готовности. Работы должны идти точно по графику, чтобы на праздниках у людей был еще один повод для радости. Квартиры перед сдачей обязательно покажут будущим новоселам и учтут все их замечания и пожелания,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акже поручил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придомовую территорию. Здесь снесли аварийные постройки. На их месте обустраивают спортивную площадку, зону воркаута, поле для мини-футбола. Активности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не только для жителей дома, но и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Работы на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е идут с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 Многоэтажку хотят сдать в ноябре, а не в декабре, как планировалось изначально.

Как рассказа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списки на переселение уже готовы. В дом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28 однокомнатных, 62 двухкомнатных, 32 трехкомнатных и 5 четырехкомнатных квартир.

В этом году по программе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нее уже сдали дом на 36 квартир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и на 45 квартир — в Санаторном.

Программа расселения финансируется полностью за счет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 личном контроле держит сроки и качеств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ьного жилья, точно взаимодействуя с ме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подрядчиками, контрольно-надзорными органами.

Отметим,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в России выполнила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жилья, признанного аварийн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Федеральный центр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у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 включен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рассчитанную на расселение фонда, призванного непригодным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до 1 января 2021 года. В ближайшую пятилетку ключи от комфортных квартир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почти 29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перспективе на островах начнут работу крупные

застройщики, а также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 проект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вартал».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государство будет бесплатно обеспечивать застройщиков земельными участками и подключением ко всей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ебестоимость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будет снижена, что позволит сдерживать рост цен на недвижимост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Губернатор достиг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федеральными властями, чтобы этот механизм заработал на Сахалине в пилотном режиме раньше, чем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Это позволит нарастить объем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 значит, быстрее решить квартирный вопрос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варталы» могут появиться в Дальнем,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и селе Мицулевка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Более 2,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из бюджета РФ получи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ю аэро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держало инициативу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важного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проекта.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региональному развитию,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арат Хуснуллин.

— Мы получим бюджетный кредит — более 2,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ю аэро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удем привлекать еще инвестиции бизнеса и регион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Аэропорт — воздушные ворота региона, первое, что видят жители и гости, прилетая на Сахалин. Нынешняя воздушная гавань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У нас должен быть современный и комфортный для пассажиров аэропорт,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пропускную способность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пять раз — до 5 миллионов пассажиров в год. Кроме того, в главной воздушной гаван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ую полосу, которая буде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требованиям сейсмобезопасности.

С этим вопросом губернатор недавно обращался к секретарю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РФ Николаю Патрушеву и к премьер-министр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ихаилу Мишустину во время его визита на Сахалин. Федеральные власти поддержал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отмети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конструкции аэропорта.

Новая взлетка позволит принимать все типы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А благодаря повышению категории аэродрома будут снижены эксплуатационные метеоминимумы. Это приведет к повышению регулярности рейсов и сведет к минимуму сбои из-за неблагоприят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Новый аэровокз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к концу 2022 года, а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ую полосу — в 2025 году.

Напомним, бюджетны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е кредиты — это инициатива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Такую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пока одобрили только для 32 субъектов РФ, хотя заявки подали 75.

Почти 3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получил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е лечени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вели итоги оказания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за 9 месяцев 2021 года. Объемы такого лечения наращивают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Мы ведем системную работу,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лечились дома, а не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летать на материк.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внедряются новые методы диагностики и лечения, ежегодно выделяются сотни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 этот год во мног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медицины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виды оперативных вмешательств. В самых сложных случаях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мы отправляем сахалинских пациентов на лечение в федеральные клиник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освоили радиочастотные абляции в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хирургии. В травматологии-ортопедии внедрены операции по эндопротезированию суставов конечностей. В онкологии ст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внутритканевую, внутриполостную и аппликационную лучевую терапию.

Новации касаются лечения как взрослых, так и детей. Сегодня в одном из федеральных центров — НИИ детской онкологии и гематологии МИЦ онкологии имени Н.Н. Блохина — проходит обучение врач дет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Специалисты федеральных клиник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ят выездные семинары и телемедицин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 Врачи из федераль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центров всегда откликаются на призыв о помощи. Совместно мы рассматриваем тактику лечения. Наиболее оперативно нужно действовать,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б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ях,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лечеб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Ирина Хегай.

В экстр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федераль-

ными клиникам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круглосуточно. Врачи дет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вспоминают случаи, когда пациенты направлялись в российские клиники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после постановки угрожающего диагноза. Иногда благодаря телеконсультациям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ведущих медицинских центров удается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состояние на месте — без выезда на материк.

Во время последнего визита на Сахалин специалисты центра имени Блохина обсуждали тактику ведения онкобольных детей, разбирали сложные случаи, встречающиеся в практике. Отдельный разговор шел о хирургическом лечении детей с нейробластомой.

— За этот год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врачами мы коммуницировали более 30 раз, разбирали выписные эпикризы. Поэтому сахалинских деток с онкозаболеваниями мы всех знаем. Мы разобрали несколько сложных клинических случаев,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вестись совместно,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НИИ детской онкологии и гематологии МИЦ онкологии имени Н.Н. Блохина Кирилл Киргизов.

Сейчас в центре проходят лечение пять сахалинских детей. Кто-то перенес хирургическую операцию, кто-то получает химиотерапию. Двое детей находятся на этапе трансплантации костного мозга. Лечение в федераль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в том числе и само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е, маленькие пациенты получают бесплатно.

Отметим, что на полях ВЭФ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на Сахалине центра ядерной медицины. Это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на островах — проводить углублен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выявлять опас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ложил медиасообществу поддержать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ткрылась очная сессия IV набора «Медиашкол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портер». На Сахалине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медиасообщества. Обучен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аппаратом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Фондом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 Вы пишете в своих изданиях и рассказываете в эфире о том, что ежедневно происходит в городах, регионах и стране. Жителей волнуют простые вопросы: куда поступить учиться, с какой профессией связать жизнь, где жить и как получать качественные услуги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эти вопросы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ы. И мы стремимся к тому, чтобы сделать жизнь здесь лучше. А делать это нужно, безусловно, вместе с обществом. Так,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ию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простых жителей нам удалось провести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на дорогах и во дворах, избавить регион от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И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и дальше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цами и курильчанам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едиасообщества,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школы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работаем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четвертый год. За это время 170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 о повыш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заочно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в этом наборе 240 человек. А всего прошло обучение очно боле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Четверть улучшила должностное положение, многие приглашены на работу в различ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десятки человек открыли собственные медиапроекты. Мы здесь не даем вам задания, мы делимся опытом. Школа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вы способны выходить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успехов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Григорий Куранов.

Участников ждет ряд мастер-классов. К примеру, автор телеграмм-канала «Политджойстик» Марат Баширов поделится техниками продвижения контента в мессенджерах, руководитель «Школы техники речи Ксении Черновой» расскажет о голосе, как инструменте влияния, а эксперт по кинетике и невербальным коммуникациям Валентин Шишкин научит журналистов управлять «языком тела». Также перед участниками Медиашколы выступят секретарь комитета по политтехнологиям РАСО Евгения Стулова и PR Директор «Медиалогии» Надежда Жуковская.

— Я учусь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на переводчика с японского 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ов.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занимаюсь журналистикой. Раньше писал и про политику, и обзоры делал, например, про наручные часы. Стараюсь посещать крупные медиафорумы. Здесь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очень много полезных навыков от ведущих экспертов. То, чему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можно обучаться месяцами или годами, на таких площадках усваивается гораздо быстрее. Заинтересовался сразу, как только увидел список приглашенных спикеров, — поделился участник Медиашколы Ярослав Мещеряков.

Такж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Медиашколы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отвечающие за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работу. В рамках этого обучающего слота предусмотрен обмен практикам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отработки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правов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работы пресс-служб и технологии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я лидер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글, 글로벌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 한국어, 그리고 한글

BTS로 대표되는 K-pop,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같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온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이러한 현상은 이제 한국어와 한글로 확장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인이 드물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JTBC가 방영한 TV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은 큰 놀라움을 안겨 줬다. 한국에 거주하는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능숙한 한국어로 특정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광경이 매우 신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인 이상으로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외국인들이 방송에 출연해 입담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정착한 이유가 문화 콘텐츠에 매력을 느껴서였다고 말한다.

1990년대에 한국 드라마들이 중화권에 소개되면서 이른바 '한류' 붐이 촉발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첫사랑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그린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가 2010년대부터 K-pop이 아시아부터 미국, 남미, 유럽에 이르기까지 굳건한 팬덤을 형성하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과 가요 속 노랫말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만들어 낸 문화 콘텐츠로 인해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콘텐츠의 성공을 넘어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사회의 한 양태를 보여 준다.

KCON 풍경

KCON은 엔터테인먼트 기업 CJ ENM이 2012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K-pop 페스티벌로 매년 해외 여러 지역에서 열린다. 단지 대중 음악 공연뿐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해 IT, 패션, 뷰티 분야의 상품까지 아우르며 한국 문화를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0월에는 방콕에서 행사가 열렸는데, 이를 동안 무려 4만 5천여 명의 현지 팬들이 몰려들었다. K-pop과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해외 팬들은 소주나 라면, 화장품 같은 한국산 상품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상품들이 진열된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이어지기 마련인데, 그러다가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 펼쳐지면 여럿이 함께 한국어 가사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광경으로 이어지곤 한다.

행사장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런 모습만이 아니다. 팬들이 직접 쓴 응원 메시지가 벽면 가득 빼곡하다. 그중에는 "사랑해요", "응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같은 한국어 문장들도 보인다. 특히 방콕 콘서트에서 스페셜 MC로 무대에 오른 아이돌 그룹 2PM의 태국인 멤버 닉쿤은 태국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공연을 진행했는데, 자국어 번역 없이도 그의 한국말을 듣고 웃거나 환호하는 태국인들이 적지 않았다.

태국에서 K-pop은 한국어 배우기 열풍에 기폭제로 작용했다. 그곳의 국공립 중등학교에서 2010년 이후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여 현재 4만 명이 넘는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또한 2018년 대학 입시부터 한국어가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이 됨에 따라 학습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BTS와 아미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팬덤을 지닌 BTS가 한글과 한국어 전파의 일등공신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2012년 발표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그해 대중음악계에서 최고의 히트곡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일반인부터 인기 연예인들까지 "오빠 강남스타일"을 외쳤다. 하지만 그 가사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반면에 최근 신곡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연속 8주 1위 기록(7월 26일 기준)을 세운 BTS는 그 이전 노래의 대부분을 한국어로 불렀고, 노래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 팬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게 만들었다. 2018년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공연에 내걸린 "고마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줘서"라는 한글 응원 슬로건은 그런 현상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나아가 아미의 폭발적 영향력을 의식해 이제 국제 사회에 도움을 청하는 한글 호소문이 등장할 정도가 되었다. 지난해 아르메니아 소녀들은 자국과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일어난 무



2019년 방콕 임팩트 아레나(Impact Arena) 및 임팩트 국제전시장(Impact Exhibition Center)에서 열린 'KCON 2019 THAILAND'에서 현지 팬들이 K-pop 노래를 따라 부르며 안무를 배우고 있다. KCON은 엔터테인먼트 기업 CJ ENM이 2012년부터 매년 해외 여러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K-pop 페스티벌이다. © CJ ENM

력 충돌에 반대하며 "평화를 원한다"고 적힌 한글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올해 초 미얀마에서도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K-pop 팬들이 한글로 "도와주세요"라는 문구를 적어 소셜미디어에 남긴 바 있다.

글로벌 문화 공동체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수용에 K-pop이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유튜브를 타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비디오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아예 고유 명사가 되어 버린 '떡방'처럼 음악 외에 다른 장르나 매체를 통해 한글 단어가 알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퍼져 나가면서 드라마가 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여러 면모가 한국어 단어를 통해 이해되기도 한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젊은 세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꼰대', 한국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숨죽여 살다가 생기는 병인 '화병(火病)', 아기를 업어 키우는 데 사용하는 전통적인 육아 용품 '포대기' 등은 한국 문화의 일면을 설명해 주는 매개로 작용했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콘텐츠 자체가 지닌 재미와 파급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SNS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한국 문화뿐 아니라 그간 저평가되고 소외되었던 세계 여러 지역 다양한 로컬 문화들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유튜브 같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일상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나 언어를 뛰어넘는 글로벌 문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됐고, 서로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려는 욕구를 갖게 됐다. 한글에 대한 관심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고 확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네트워크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가 갖는 매력이 이전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클럽이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날을 축하합니다"라는 한글 메시지를 구단 공식 SNS에 올렸던 것은 박지성(Park Ji-sung 朴智星) 선수의 매력이 촉발시킨 결과다.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을 거머쥔 봉준호(Bong Joon-ho 奉俊昊) 감독은 그 직전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받으면서 이런 수상 소감을 남겼다.

"자막의 장벽을... 장벽도 아니죠,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화입니다."

그의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무대에서 언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다. 한국인이 만들어 낸 문화 콘텐츠로 인해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콘텐츠의 성공을 넘어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사회의 한 양태를 보여 준다. 동시에 이러한 현상은 한국 문화 콘텐츠가 앞으로 더욱 인류의 보편적 감성과 가치에 부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어와 한글이 인류 문화를 보다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 것이다.

정덕현(Jung Duk-hyun 鄭德賢) 대중문화평론가
(코리아나 잡지, 2021년 여름)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온라인 등록 기간 연장

10월 1일(금)부터 10월 10일(일)까지
온라인 등록에 한해 연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개최하는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온라인 등록기간이 10월 1일(금)부터 10월 10일(일)까지 연장된다.

오는 10월 19일부터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될 세계한상대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차산업혁명과 그린뉴딜'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계한상대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으로 개·폐회식, 기업IR, 세미나, 현장쇼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

온라인 등록은 한국시간 기준 10월 10일까지 한상넷(<https://www.hansang.net>)을 통해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등록은 9월 30일 기준으로 마감되었다.

김성곤 이사장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오프라인 참석인원 제한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온라인 등록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며 "전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장이 될 세계한상대회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월드옥타 동서유럽·CIS 지회장 리더스 캠프' 헝가리서 개최

지회 활성화 및 지회장 역량 강화 위해 마련



'2021 월드옥타 동서유럽·CIS 지회장 리더스 캠프'가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BO18호텔에서 열렸다. (월드옥타 부다페스트지회)

'2021 월드옥타 동서유럽·CIS 지회장 리더스 캠프'가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BO18호텔에서 열렸다.

월드옥타 동서유럽·CIS 지역 지회 간 소통 활성화 및 지회장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최귀선 유럽·CIS 담당 부회장과 주대석 본부 부회장을 비롯해 동서유럽과 CIS 지역 지회장 등 22명이 참석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상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박철민 주헝가리대사, 박기원 코트라 헝가리 무역관장이 내빈으로 초청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월드옥타 동서유럽·CIS 지회별 현황 공유 ▲20대 월드옥타 비전 달성을 위한 과제 실행 계획에 관한 설명회 ▲지회 간 협업 및 활성화 방안 토의 ▲지회장 역량강화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해외취업지원사업, 해외마케팅사업 등 월드옥타 본부 사무국 주요사업 소개 등이 진행됐다.

행사를 주도한 최귀선 유럽·CIS 담당 부회장은 "유럽·CIS 지역은 64개국 138개 도시에 지회를 둔 월드옥타에서 가장 많은 지회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자 한국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곳"이라며 "이곳에서 활동하는 지회장들의 역량을 일깨우고 재교육함으로써 각 지역 회원들이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2021 월드옥타 동서유럽·CIS 지회장 리더스 캠프'에 참석한 지회장은 다음과 같다. 이영인(부다페스트), 김태우(프라하), 김동석(프라하), 김성태(알마티), 오상택(비슈케크), 이흥민(바르샤바), 김종민(빈), 이은행(부쿠레슈티), 신광희(모스크바), 김성태(블라디보스톡), 정하동(브라티슬라바), 정지섭(이스탄불), 정보영(코펜하겐), 주교진(헬싱키), 정종구(뒤셀도르프), 이은주(프랑크푸르트), 김영기(마드리드), 김성희(스톡홀름), 오영주(스톡홀름), 손병권(런던).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Конкурс эссе "Русь необъятная. Памятные места":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видеоклады, посвященные памятным местам, связанным с сохранением памяти о князе Александре Невском (памятники, храмы, места его пребывания и ратного подвига и т.д.).

제주에서 최고 학생 꿈쳐

러시아 연방 체육 문화 명예 활동가 데.에프. 비코바를 기리는 제10회 사할린주 도시와 농촌 학교간 육상 계주 대회 결승전이 10월 2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되었다.

코르사코브, 우글레고르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홈스크, 스미르니흐, 유즈노쿠릴스크, 돌린스크, 노글리키, 네웰스크, 마카로브, 아니와, 포로나이스크, 티몐스코예, 오하, 토마리, 유즈노사할린스크 등 16개 구역 100명 이상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했다.

농촌과 도시 팀으로 나누어 4x100 미터 혼합 계주, 그리고 농촌학교 팀은 400x300x200x100 미터 계주, 도시학교 팀은 400x400x300x300x200x200x100x100미터 계주 - 두 가지 종목에서 경기를 했다.

농촌학교 팀 간 대결 결과 4x100미터 계주에서 56초, 장거리 계주에서 2분37.01초의 기록으로 트로이츠코예 5번 중학교(아니와 구역) 팀이 두 종목에서 우승하였다.

농촌학교 팀 중에서 두 개 종목 및 종합 순위에서 네크라솅카 마을(오하 구역) 기숙학교 학생들이 2위(57.3초 및 2:38.9)를 차지했다. 단거리 릴레이 및 종합 순위 3위(58.6초)는 포베지노 마을학교(스미르니흐 구역) 팀이 차지했다. 스웨덴식 릴레이에서는 위스토크 마을(포로나이스크 구역) 학생들이 3위(2:42.4)를 차지했다.

도시 팀 가운데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6번 학교가 두 개 종목에서 승리(51.0초, 4:51.2)를 차지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대회의 우승컵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전 대회 우승컵 또한 6번 학교가 차지한 바 있다.

단거리 계주에서는 홈스크의 "소망" 리제이의 학생들이 53.4초로 2위, 코르사코브의 6번 학교가 53.5초로 3위를 차지했다. 장거리 경주에서는 선수들의 순위가 바뀌어, 코르사코브는 5분 6.45초의 기록으로 종합 2위가 되었다. 그리고 홈스크 팀은 5분 15.05초로 3위를 차지했다.

Определены сильнейшие в эстафетном беге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Финальный этап X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м эстафетам среди городских и сельск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области памяти заслуженного работника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РФ Т.Ф. Быковой прошёл 2 ок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частниками состязаний стали более ста ребят из 16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Смирновского,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Ноглик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Макаров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Охинского, Томаринского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мандам предстояло показать свои силы в двух дисциплинах: смешанные эстафеты 4x100 метров отдельно для сельских и городских команд, а также эстафеты 400x300x200x100 метров для сельских школ и 400x400x300x300x200x200x100x100 метров среди городских школ.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среди сельских команд на обеих дистанциях, а также в общекомандном зачёте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ребята из Троицкой СОШ №5 (Анивский район) с результатами 56 секунд на 4x100 и 2:37,1 на длинном маршруте.

Второе место в обеих дисциплинах и общем зачёте заня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школы-интерната села Некрасовка (Охинский район) (57,3 и 2:38,9). Тройку лидеров на короткой эстафете и общем зачёте замкну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школы села Победино (Смирновский район) (58,6). На шведской эстафете третье место заняли учащиеся школы села Восток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 (2:42,4).

Среди городских команд победу на обеих дистанциях одержали ребята из школы №6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51,0 и 4:51,2). Они же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ями переходящего Кубка соревнований — до этого главный приз также находился в СОШ №6.

На короткой эстафете вторыми стали учащиеся лицея "Надежда" Холмска (53,4), а третьими — воспитанники школы №6 Корсакова (53,5). На длинном маршруте ребята поменялись местами — Корсаков показал время 5:06,45 и параллельно стал вторым в общекомандном зачёте, а Холмск третьим, с результатом 5:15,5,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минспорт.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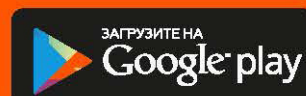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도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